

조선 17세기 충청권역 戴冠菩薩形 掛佛의 특색

박은경*

〈목 차〉

- I. 머리말
- II. 17세기 충청권역 대관보살형 괘불의 사례
- III. 대관보살형 괘불의 도상과 상징성
- IV. 대관보살형 괘불의 보관형식과 금색문양, 코발트계 청색
- V. 맺음말

국문요약

현존하는 조선시대 90여 점의 괘불 도상 중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장엄한 특이한 도상의 대관보살형 괘불은 20여 점에 이른다. 괘불 출현으로서는 이른 시기인 17세기에 대관보살형 괘불이 출현하며, 그것도 마곡사 본말사를 비롯한 충청권역의 사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때 괘불의 본존은 대관보살형에 外掌形의 설법인을 취하거나 혹은 연화가지를 손에 쥔 연화수지형 도상이어서 주목된다.

대관보살형 도상은 화신 석가불 혹은 보신 노사나불로, 화엄과 법화 사상이 융합된 대표적 사례이며, 여기에 연화시중을 상징하는 선종 사상이 융합된 연화수지형 모티프도 함께 등장한다. 이 대관보살형 도상은 석가·비로자나·노사나 삼신은 결국 하나로, 법신·보신·화신의 三身卽一身觀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 후기 법화의 대영산회를 구현한 시공간에 화엄의 불신관과, 연화시중의 선종 사상이 융합되어 이미지로 표출된 복합 도상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복합도상은 화엄과 관련있는 충청권역의 사찰에서 주도적으로 제작되어 그 견인역할을 하였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고, 이후 18세기 경북·경남권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화엄과 관련있는 17세기 대관보살형 괘불이 영산회 의식에 사용된 것은 당시 지역적·시대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역적으로 화엄계 사찰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범화신앙의 바탕 속에서 화엄의 불신관과 선종의 염화시증이 융합 될 수 있었던 불교계의 동향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17세기 대관보살형 괘불의 보관형식과 설채, 문양에 있어서 몇가지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첫째, 본존이 착용한 화려한 보관이 매우 특징적으로, 하나는 무량사 괘불(1627), 신원사 괘불(1664) 처럼 보관 양측에 금속성의 횡대가 대칭적으로 뻗은 것이다. 이 형식은 고려 후기~조선전기의 전통적인 보살상의 기본적인 보관형에서 발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곡사 괘불(1687), 장곡사 괘불(1673) 처럼 통체부가 상하 1~2단으로 구성된 보기 드문 형식으로, 티벳 라마 불교 도상을 수용한 중국 원·명대 보살상의 보관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외래 요소로 보인다.

둘째, 광배와 착의 문양에 부분적으로 화려한 금박편을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과 유사색을 띠는 자황으로 추정되는 황색을 금니(혹은 금박)에 대체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금박의 국화집단문은 이 시기에 유행한 표현기법으로 이후 18세기로도 확산된다.

셋째, 불보살상의 착의와 각종 모티프의 장신구에 배풀어진 채색중 은색의 반짝임이 강한 코발트계 짙은 군청안료는 무량사 괘불(1627), 감사 괘불(1650), 신원사 괘불(1664), 마곡사 괘불(1687) 등에 확인되며, 17세기 충청권 괘불에 공통적으로 집중 사용된 안료이다. 이는 은색이 포함된 중청으로 추정되는 짙은 청색 안료일 가능성이 크며, 적어도 17세기 경기·충청권역의 지역적 특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대관보살형 괘불, 마곡사, 신원사, 장곡사, 수덕사, 무량사, 감사

I. 머리말

태화산 자락에 자리잡은 마곡사는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진입하는 굽이치는 계곡과 사계의 자연림이 어우러져 천년고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풍광으로 유명한 마곡사의 사명은 『泰華山麻谷寺事蹟立案』(1851)에 그 이름이 처음으로 확인되나, 마곡사의 탄생은 신라 선덕여왕 9년(643)에 자장이 창건하여 고려~조선시대에 중창과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른다고 한다.¹⁾ 그러나 창건기를 입증할 만한 유물과 유적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경내 대광보전 앞쪽에 고려시대 라마탑 양식의 오층석탑이 우뚝 솟아있으며, 寺中에 고려 청동은입사향완과 감지금·은니묘법연화경 등의 유물이 전하고 있어,²⁾ 적어도 중세 고려시대에는 존재하였을 것으로 본다.

마곡사는 오랜 역사의 굴곡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화승들이 이 곳에 발길을 멈추며 활약한 남방화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그 화명을 떨치게 된 것은 금호당 若效(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가 마곡사를 비롯한 충청권역에서 활동한 시기로 보고 있다.³⁾ 이처럼 화승들을 머물게 한 요인이라도 되듯이 마곡사 경내에는 대웅보전(보물 제801호)·대광보전(보물 제802호)·영산전(보물 제800호) 등과 같은 역사적 공간 건축물외에도 기념비적인 괘불(보물 제1260호) 1점이 전해온다. 이 괘불은 이미 지상전시를 통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본존의 모습이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고, 연화가지들 손에 쥔 戴冠菩薩形 석가 도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특이한 장엄신 도상으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⁴⁾

¹⁾ 『마곡사麻谷寺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15~17쪽.

²⁾ 앞의 책, 2012, 16쪽.

³⁾ 김정희, 『마곡사 괘불탱』, 『공주 마곡사 괘불탱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12』, 통도사성보박물관, 2004, 5쪽.

⁴⁾ 대관보살형 도상 및 괘불에 대한 대표적 글은 장충식, 『조선조괘불의 고찰-본존 명칭을 중심으로-』, 『한국의 불화9』, 직지사본말사편(하), 성보문화재단연구원, 1995, 254~255쪽; 문명대, 『삼신불의 도상 특징과 조선시대 삼신불회도의 연구 : 보관불 연구 1』, 『한국의 불화12』, 선암사본말사편, 성보문화재단연구원, 1998, 207~226쪽; 이은희, 『조선 후기 미륵보살도의 연구』, 『문화재』 30, 국립문화재단연구소, 1997, 165~166쪽; 이영숙, 『조선 후기 괘불탱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64쪽; 정명희, 『조선 후기 괘불탱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42, 243, 2004, 179~186쪽; 김정희, 앞의 논문, 2004, 4~19쪽; 박은경, 『신원사 괘불탱』, 『공주 신원사 괘불탱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13』, 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5~19쪽; 유마리, 『多佛(三身三世佛) 괘불화』, 『강좌미술사』 33, 2009, 171~193쪽; 정명희, 『1673년 청양 장곡사 괘불 연구』, 『청양 장곡사 괘불탱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26』, 통도사성보박물관, 2012,

그런데 마곡사 본말사를 비롯한 충남권역의 사찰에 기념비적인 괘불이 1점씩 존재하는데, 특히 이들 충청권역의 사찰에는 17세기에 제작된 괘불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고 外掌形의 설법인을 취하거나 혹은 연화가지로 손에 쥔 대관보살형 도상의 괘불이 집중 분포하여 주목된다. 아울러 괘불의 보관형식과 설채, 문양에 있어서도 몇가지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따라서 본 글은 충청권역에 소재하는 대관보살형 괘불 사례와, 이들 도상의 상징성, 보관의 형식과 화풍상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17세기 충청권역 대관보살형 괘불의 사례

충청권 소재 마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로서 70여 말사를 관장하고 있다. 본사 마곡사를 비롯하여 말사인 무량사, 갑사, 신원사, 장곡사 등과,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 등의 충청권역 사찰에 기념비적인 대관보살형 괘불이 1점씩 존재한다(표 1 참조).

표 1. 17세기 충청권역 대관보살형 괘불 목록

	명칭	본존도상	크기cm	재질	연대	소재
1	무량사괘불	미륵불	1213×685	견본채색	1627	충남 부여군 만수산
2	갑사괘불	삼신불	1086×841	마본채색	1650	충남 공주시 계룡산
3	신원사괘불	노사나불	971×620	마본채색	1664	충남 공주시 계룡산
4	장곡사괘불	미륵불	809×566	마본채색	1673	충남 청양군 칠갑산
5	마곡사괘불	석가불	1065×709	마본채색	1687	충남 공주시 태화산
6	수덕사괘불	노사나불	1059×727	마본채색	1673	충남 예산군 덕숭산

1. 무량사 미륵괘불(도 1)

무량사 미륵괘불(1627)은 수화사 法罔이 제작한 불화이다.⁵⁾ 화면 전면에는 화려한 보관을 갖춘 보살형 본존이 양손으로 연봉가지를 권채 원형 두광과 연판

6~25쪽.

⁵⁾ 무량사괘불에 대한 기존의 대표적 논고는 유마리, 「충남 무량사 불화의 고찰」, 『고고역사학지』 16,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0, 617~629쪽; 김수영, 「무량사 괘불탱」, 『무량사 괘불탱 : 통도사 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22』, 통도사 성보박물관, 2010, 7~20쪽.

형 신광을 갖추고 서있다. 보관 정중앙에는 연꽃위에 항마인의 여래 화불이 상하 단으로 각각 배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보살형 화불이 부채꼴 모양처럼 정연하게 펼쳐져 있으며, 보관 양측으로 뻗어나온 2조의 관대 위에도 여래형 화불 4위가 배치되어 있다. 보관 좌우측 아래로 드리워진 등근 화문 수식과 흥부의 수식, 군의 중앙의 수식 등도 매우 화려하다. 주색 군의 양쪽 무릎 중간부분에 짙은 감색의 大佩垂飾과 화문, 구슬장식 역시 동일한 장식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허리부분에 걸친 短裳에는 보상화계 넝쿨무늬를 충만하게 그렸다.



도 1. 무량사 미륵괘불, 조선 1627년, 견본채색 1,213x685.5cm, 보물 제1265호
충남 부여 무량사

그리고 본존 불신을 둘러싼 광배 주변에 청, 홍, 녹색의 방광이 뻗어나오고, 이 방광의 물결을 따라 여래형 화불이 좌우에 8위씩 총16위가 배치되어 있다. 광배는 녹색 원형 두광에 연판형 신광을 구비하였는데, 신광 내부는 연꽃과 연잎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면적인 문양의 나열이 아니라 마치 연지에서 피어오르듯 입체적이다. 상단 천공과 하단에는 채운으로 화면을 여백없이 꽉 메우고 있다. 채운은 기본적으로 황색, 주색, 녹색을 주조색으로 활용하였고, 구름의 가장자리는 백색을 바림하였으나, 마치 띠를 두르듯이 매우 장식적이다. 7

2. 신원사 노사나괘불(도 2)

신원사 노사나괘불은 수화사 應悅이 1664년에 제작한 불화이다. 화면 중

6) 大佩垂飾 용어는 김정희, 앞의 논문, 2004, 9쪽 참조.

7) 무량사 미륵괘불의 현상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박은경, 「기념비적인 괘불탱掛佛幀과의 조우 : 마곡사 麻谷寺 본말사本末寺편」, 『마곡사麻谷寺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198쪽.

8) 신원사 노사나괘불에 대한 대표적 논고는 박은경, 「신원사 괘불탱」, 『공주 신원사 괘불탱 :



도 2. 신원사 노사나패불, 조선 1664년, 마본채색, 971x620cm, 국보 제299호
충남 공주 신원사

양에 원형 두광과 연판형 신광을 갖추고 화려한 보관을 쓴 대관보살형 입상불이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두팔을 벌려 설법인의 모습으로 좌좌 위에 서있고, 본존 주변에는 오색찬연한 방광의 물결을 배경으로 권속들이 모여드는 형상이다. 본존의 두광 안쪽 8개의 원에 황서로 ‘원만보신노사나불(圓滿報身盧舍那佛)’이라는 존명이 적혀있다. 노사나불의 보관은 금제장식과 각종 화문과 백옥구슬로 엮은 수식으로 매우 화려하다. 보관에는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을 포함하여, 좌우로 총 9위의 화불이 화염형 장식의 광배에 둘러싸여 있고, 신광의 가장자리 주색 테두리에도 총 8위의 화불이 표현되어 있다.

본존 주변의 방광 물결을 배경

으로 원형 두광의 위쪽에 여래상 2위와 보살상 2위가 좌우 대칭을 이루며 연화좌에 앉아 있고, 그 바깥쪽 화면에는 天果가 담긴 盤을 든 공양비천상이 본존을 향해 날아들고 있다. 본존 두광 좌우측에는 십대제자, 본존 어깨부위의 좌우측에는 관음과 지장, 합장형보살이 대칭을 이루며 강림하는 모습이고, 본존의 하반신 좌우측에는 원형 두광을 갖춘 보살상이 3위씩 총 6위와, 천부 복식을 갖춘 범·계석천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보살상의 바깥쪽으로 비파를 쥔 동방지국천왕과 장도를 쥔 남방증장천왕, 용과 여의보주를 쥔 서방광목천왕, 보탑을 든 북방다문천왕이 화려한 갑주와 천의를 갖춘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결국 본존을 중심으로 총 49위의 존상들이 광염의 물결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패불의 상·하측에는 50cm 정도의 폭에 균청색 바탕에 먹선으로 모란넝쿨 연속 무늬의 장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화면 상하좌우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20cm 폭의 백색 테두리와 주색선을 둘러 화면의 외형 틀을 갖추고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 패불탱 특별전 13』, 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5~19쪽.

」 신원사 노사나패불의 현상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박은경, 앞의 논문, 2012, 202쪽.

3. 갑사 삼신불괘불(도 3)

갑사 삼신불괘불은 1650년에 수화사 敬峯이 제작한 불화이다.¹⁰⁾ 화면 중앙에 연관형 두신광을 배경으로 ‘중-비로자나불’, ‘좌-노사나불’, ‘우-석가불’로 구성된 삼신불이 수미단 위에 배치되어 있고,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 사이에는 원형 두신광을 갖춘 약사 화불이, 비로자나불과 석가불 사이에는 아미타 화불이 자리하고 있다. 비로자나불 전면에는 문수와 보현보살이 시립하고, 가장자리에는 사천왕이 2위씩 외호하고 있으며, 비로자나불의 정면 중앙에는 무릎을 구부린 청문자상이 위치하고 있다. 삼신불의 두광 주변에는 보살상 8위, 나한상 14위가 에워싸고, 천개 아래에는 여래좌상과 여래입상이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정병을 손에 쥔 관음보살, 우측에는 정병을 손에 쥔 백의관음이 강림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 양측에는 녹색 두광을 갖춘 범·제석천, 금강상 4위가 합장한 모습으로 외호하고 있다.

비로자나불과 석가의 녹색색 복건의에는 소형의 범자문이 장식되어 있고, 비로자나불의 대의와 복건의의 가장자리에 베풀어진 금색의 화문은 노사나불과 석가의 법의, 사천왕상의 착의, 나한상의 가사 등에도 확인된다. 삼신불의 광배는 연관형 두광과 신광이 연결된 형태로, 비로자나불은 연꽃넙굴 무늬를, 노사나와 석가는 모란넙굴 무늬를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가장자리는 소형의 소용돌이 띠를, 다시 그 외곽에는 붉은색 광염을 각각 테두리로 둘렀다. 화면 상단의 균청색 천공에는 매점문과 같은 화문을 장식하고, 연화천개 양쪽으로는 서기가 뻗어나고 있으며, 그 외 상하단에는 황색·녹색·주색의 채운이 채워져 있다.¹¹⁾



도 3. 갑사 삼신불괘불, 조선 1650년, 마본채색 1,086x841cm, 국보 제298호, 충남 공주 갑사

¹⁰⁾ 갑사괘불에 대해 언급한 대표적 논고는 이영숙, 앞의 논문, 2003, 158~163쪽; 정명희, 앞의 논문, 2004, 175~179쪽; 문명대, 앞의 논문, 1998, 207~226쪽.

¹¹⁾ 갑사괘불의 현상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박은경, 앞의 논문, 2012, 200쪽.

4. 장곡사 미륵괘불(도 4)



도 4. 장곡사 미륵괘불, 조선 1673년, 마본채색
809x566cm, 국보 제300호, 충남 청양 장곡사

장곡사 미륵괘불은 수화사 철
哲學이 1673년에 제작한 것으로,¹²⁾
화면 중앙에 원형두광과 연관형의
신광을 갖추고 화려한 보관을 쓴 대
관보살형의 입상불이 양 손에 연꽃가
지를 쥐고 서있다. 본존의 주변에는
각종 도상들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정
연하게 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으며,
도상들마다 옆에 방제관을 갖추고 그
안에 황서로 명호가 기입되어 있다.

화면 가운데 좌측에 여래형에
설법인을 취한 노사나불, 반대편 우
측에 지권인의 비로자나불, 그 아래
쪽에 좌-대묘상보살, 우-법림보살,
이들 가장자리에 좌-일월천자, 우-
현주천녀, 천동이 배치되어 있다.

본존의 원형 두광 양쪽에는 여
래상 4위, 보살상 4위, 그 외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여래상은 좌-다보·약사여
래, 우-석가·아미타여래 등으로 구성되고, 그 주변을 약거라, 소빈라, 라고라,
반타가, 제대용왕, 아사세왕, 용녀현여래, 위데회자 등이 에워싸고 있다. 여래상
아래쪽에는 좌-문수·관음보살, 우-보현·대세지보살, 그 주변에는 가리라, 아
벌라, 빈두루 등의 명호를 지닌 도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 하단에는 범·제석
천과 사천왕상, 목련존자, 가섭과 아난, 보향과 보광천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두부에는 몸체가 칸을 이루며 부채꼴처럼 펼쳐진 특이한 보관을 착용하였
고, 그 중앙에 향마인과 지권인의 여래상을 상하로, 좌우로 뺀 관대 위에는
설법인과 구품인의 여래상을 각각 배치하였다. 착의는 군의와 천의외에도 승각기
아래쪽에 걸친 조백은 끝자락이 마치 영지모양처럼 장식적이다. 하반신에는 주색
군의를 입고, 허리부분에 백록색 단상을 걸쳤으며, 양쪽 무릎 중간부분에 청색
대패수식을 늘어뜨렸다.

¹²⁾ 장곡사 미륵괘불에 대한 대표적 논고는 정명희, 「1673년 청양 장곡사 괘불 연구」, 『청양 장곡사
괘불탱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26』, 통도사성보박물관, 2012, 6~25쪽.

그리고 화면 외곽 가장자리에는 범자삼입 모란넝쿨 연속무늬를 둘러 장황하고, 상측에는 감색 바탕에 모란넝쿨 연속무늬가 묘사되어 있다. 하단에는 왕실의 축수문외에 기년, 시주, 화사질 등을 밝힌 묵서화기가 있다.¹³⁾

5. 마곡사 석가모니괘불(도 5)

마곡사 석가모니괘불은 1687년에 能學을 비롯한 6명의 화승이 제작한 것이다.¹⁴⁾ 화면 중앙에 원형 두광과 연판형의 신광, 화려한 보관을 갖춘 대관보살형의 입상불이 양 손에 연꽃가지를 쥐고 연화족좌 위에 서있다. 두광의 좌측에 비로자나불, 우측에는 노사나불이 자그마한 크기로 그려져 있고, 본존 주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사천왕상, 보살상 6위, 범·제석천, 벽지불, 십대제자, 팔부중 등 총 35위의 도상들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감사괘불처럼 각 도상들마다 주색 방계란을 낀채, 그 안에 금서로 명호를 각각 밝히고 있는데, 특히 본존의 녹색 두광의 안쪽에 금서로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이라고 적혀있다.

본존의 보관은 상하 2단으로, 몸체에 각종 길상 모티프와 화문, 보주 등이 장식되어 있다. 착의는 하늘색의 조백을 걸치고, 양쪽 어깨에 금박 장식의 금속성 장신구가 부착된 녹색 하피를 걸쳤고, 하반신에는 분홍색의 군의 위에 주색 단상을 걸쳤으며, 무릎 중간부분에는 대패수식을 늘어뜨렸다. 본존의 녹색 두광의 테두리는 색 띠를 둘러고, 가장 외곽에는 금박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장을 붙여 마무리하였다. 신광은 연꽃과 연엽 넝쿨무늬를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가장자리에 화문과 보주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였으며, 가장 외곽에는 넝쿨무늬가 그려진 붉은색 띠가 둘러져



도 5. 마곡사 석가모니괘불, 조선 1687년
마본채색, 1,065x709cm, 보물 제1260호
충남 공주 마곡사

¹³⁾ 장곡사괘불의 현상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박은경, 앞의 논문, 2012, 204쪽.

¹⁴⁾ 마곡사괘불에 대한 대표적 논고는 다음과 같다. 김정희, 「마곡사 괘불탱」, 『공주 마곡사 괘불탱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12』, 통도사성보박물관, 2004, 4~19쪽.

있다. 화면 상단에는 천개를 중심으로 오색 방광이 뻗어나고 있으며, 하단 중앙에 마련된 화기란에는 묵서로 시주질과 연화질, 기년과 본사목록 등을 밝힌 장문의 화기가 적혀있다.¹⁵⁷

6. 수덕사 노사나괘불(도 6)

수덕사 노사나괘불(1673)은 수화사 應悅이 신원사 괘불(1664)에 이어 두 번째로 괘불 제작을 주도한 작품이다. 역시 신원사본과 마찬가지로 화면 중앙에 원형 두광과 연관형 신광을 갖추고 화려한 보관을 쓴 대관보살형의 입상불이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두팔을 벌려 설법인의 모습으로 연화족좌 위에 서있다. 본존 주변에는 오색찬연한 방광 물결을 배경으로 보살을 비롯한 제권속들이



모여드는 형상이다. 본존의 녹색 두광 안쪽에 배열된 여덟 개의 원 안에 황서로 ‘圓滿報身盧舍那佛’이라는 존명이 역시 적혀있다. 보관형식은 앞서 언급한 신원사괘불과 거의 동일하다. 보관의 정중앙에는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을 비롯하여, 좌우로 화불을 4위씩 배치해 총 9위의 화불이 화염형 장식의 광배에 둘러싸여 있으며, 신광의 가장자리 주색 테두리에도 좌우 4위씩 총 8위의 화불이 표현되어 있다. 그 외 방광의 물결 위에 배치된 도상들은 거의 신원사 괘불과 흡사하다.

도 6. 수덕사 노사나괘불, 조선 1673년, 마본채색, 1059×727cm, 보물 제1263호
충남 예산 수덕사

Ⅲ. 대관보살형 괘불의 도상과 상징성

조선시대 괘불은 현재 시기가 가장 이른 죽림사본(1622)을 필두로 90여 점

¹⁵⁷마곡사 석가모니괘불의 현상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박은경, 앞의 논문, 2012, 196쪽.

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도상은 불제자 및 권속들을 거느린 석가 단독 설법 장면이나, 이때 석가는 육계와 계주를 갖춘 전형적인 여래형이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장엄한 대관보살형(戴冠菩薩形) 본존 괘불로 20여 점에 이른다.¹⁶⁷ 그리고 세 번째는 삼신불, 삼세불, 오불회(삼신+삼세) 등과 같이 삼존 혹은 오존으로 구성된 다불회 도상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마곡사 본말사 괘불을 포함한 충청권역 괘불의 본존은 대개 보살형의 모습으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장엄한 대관보살형 도상이 다수를 차지하며, 괘불 조성으로서는 시기가 이른 17세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대관보살형 괘불 도상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표 2 참조). 즉, ㉠형은 양쪽 손바닥을 위로 향한 외장형의 설법인을 취한 보살형, ㉡형은 연꽃가지를 양손에 쥔 연화수지 보살형, ㉢+㉣형은 설법인의 모양에 연꽃가지를 든 설법인+연화수지 보살형으로, ㉠과 ㉡가 융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대관보살형이 단독 주존으로 등장하는 괘불의 경우, ㉠형은 신원사(1664), 수덕사(1673), 광덕사(1749), 홍국사(1759) 등의 괘불을 들 수 있으며, 17세기 충청권에서 주도한 괘불도상이다. ㉡형은 무량사(1627), 장곡사(1673), 울곡사(1684), 마곡사(1687) 등의 괘불을 들 수 있으며, 이 유형 역시 17세기 충남권에서 주도적으로 제작되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경북과 경남권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과 ㉡형이 융합된 ㉢+㉣형은 현재 18세기 말에 제작된 경남권 통도사 괘불(1792)이 유일하다.¹⁷⁷

이어 삼신불과 오불회 괘불처럼 화엄도상과 관련있는 다불회에 등장하는 노사나불은 역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장엄한 ㉠형과 같은 대관보살형 도상으로 표현된다. 삼신불회 중에서는 17세기 충남권의 갑사 괘불(1650)을 비롯해 18~19세기 괘불로는 5점이 있으며, 오불회 중에서는 칠장사 괘불(1627), 부석사 괘불(1745) 등의 사례가 있다.

결국 대관보살형 도상은 앞서 표2에서 제시하였듯이, 단독이든 군도형식이

¹⁶⁷ 괘불의 도상별 유형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영숙, 앞의 논문, 2003 ; 정명희, 앞의 논문, 2004 ; 김정희, 앞의 논문, 2004 ; 박은경, 앞의 논문, 2005 등을 들 수 있다.

¹⁷⁷ 戴冠菩薩形 도상 가운데 설법인과 연화수지 도상에 대해 기존에 노사나불, 미륵불, 석가모니불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명칭 또한 염화불, 장엄신괘불 혹은 보관노사나불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박은경, 앞의 논문, 2005, 11쪽(주 17) 재인용 ; 장충식, 앞의 논문, 1995, 254~255쪽 ; 문명대, 앞의 논문, 1998, 207~226쪽 ; 이은희, 「조선후기 미륵보살도의 연구」, 『문화재』3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165~166쪽 ; 정명희, 앞의 논문, 2004, 179~186쪽 ; 김정희, 앞의 논문, 2004, 12~13쪽.

표 2. 대관보살형 도상 괘불 목록-독존·삼신불·오불회를 중심으로¹⁸⁾

주요 도상	수인 유형	이미지		사찰	지역	시기	화기 및 방기명	
							화기	방기-본존명칭
독 존 불	㉔ 외장형 설법인		①	신원사	충남·공주	1664	大靈山會上幀	圓滿報身盧舍那佛
			②	수덕사	충남·예산	1673	靈山掛佛畫	圓滿報身盧舍那佛
			③	광덕사	충남·천안	1749	掛佛幀	
			④	홍곡사	전남·여수	1759	掛佛幀	
	㉕ 연화수지		①	무량사	충남·부여	1627	彌勒掛佛幀	
			②	장곡사	충남·청양	1673	靈山大會掛佛幀	彌勒尊佛
			③	율곡사	경남·산청	1684	掛佛幀	
			④	마곡사	충남·공주	1687	掛佛幀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⑤	금당사	전북·진안	1692	掛佛幀	
			⑥	적천사	경북·청도	1695	掛佛靈山幀	
			⑦	수도사	경북·영천	1704	世尊掛佛影像	圓滿報身盧舍那佛
			⑧	청량사	경북·봉화	1725	釋迦如來	
			⑨	법주사	충북·보은	1766	掛佛幀	
			⑩	통도사	경남·양산	1767	掛佛	釋迦如來像 (*掛佛改成記)
			⑪	쌍계사	경남·하동	1799	畫幀	
⑫			직지사	경북·김천	1803			
㉖+㉕ 설법인· 연화수지		①	통도사	경남·양산	1792	掛佛		
삼 신 불	㉗ 외장형 설법인		①	갑사	충남·공주	1650	掛佛	
			②	봉선사	경기·남양주	1735		
			③	개심사	충남·서산	1772	大靈山掛佛幀	
			④	홍천사	서울·돈암동	1832	掛佛	
			⑤	청계사	경기·의왕	1862	掛佛幀	
			⑥	백련사	서울·성북구	1868	掛佛幀	
오 불 회	㉘ 외장형 설법인		①	칠장사	경기도·안성	1628	掛佛	
			②	부석사	경북·문경	1745	掛佛幀	

든 17세기 마곡사 본말사를 포함한 충청권에 ㉔외장형(外掌形)의 설법인 보살형 ㉕연꽃가지를 양손에 쥔 보살형 등의 대관보살형 도상의 패불이 집중되어 있으며, 점차 17세기말~18세기초 그 경계지역으로 퍼져가며 18세기에 이르러 경북·경남권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에서 18세기로 이행된 시기성과 더불어 충청권에서 경북·경남권역으로 확산된 지역성을 동시에 잘 보여주는 도상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대관보살형 패불의 본존 도상은 화신 석가불, 보신 노사나불, 그리고 미륵불로 대별된다. 이미 알려진 바 있는 風溪 明察의 「栗谷寺掛佛幀記」(1684년경), 「通度寺改成掛佛記」(1767)의 현관, 남장사 『佛事成功錄』(1788) 등의 자료가 있다. 이와 관련된 도상은 화신 석가여래로 영산회에 사용된 영산교주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 즉, 「栗谷寺掛佛幀記」(1684년경), 「通度寺改成掛佛記」(1767)의 내용은 영산회에 사용할 대관보살형 패불을 조성하면서 그 까닭에 대해 밝힌 것으로 비로자나·노사나·석가 삼신불이 결국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佛事成功錄』(1788)은 화신 석가불과 법신 비로자나불을 동시에 성취해야만 올바른 깨달음에 이름을 가르치고 있다.¹⁸⁾ 이들 기록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법신·보신·화신의 三身卽一身觀, 또는 법신과 화신의 二身卽一身觀²⁰⁾의 내용은 천태의 삼신설을 바탕으로 한 법화사상, 조선후기 17~18세기 화엄을 중심으로 한 대승경전의 講經과 講會의 성행 등 불교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²¹⁾



그리고 단독상 ㉖유형인 신원사 패불의 경우, 본존 두광에 ‘圓滿報身盧舍那’ 도 7. 신원사 노사나패불(본존) 조선 1664년

18) 이 표는 박은경, 앞의 논문, 2005, 10쪽(표 3)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19) 박은경, 앞의 논문, 16쪽 재인용. 「栗谷寺掛佛幀記」(1684년경), 「通度寺改成掛佛記」(1767년)의 현관, 남장사 『佛事成功錄』에 관한 내용은 이미 다음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 한정호, 「1767년 양산 통도사 패불탱」, 『통도사성보박물관 패불탱특별전 5』, 통도사성보박물관, 2001, 14쪽 ; 이용윤, 「불사성공록을 통해본 남장사 패불」, 『통도사성보박물관 패불탱특별전 6』, 통도사성보박물관, 2001, 13~14쪽 ; 이영숙, 앞의 논문, 2003, 156~158쪽.

20) 二身說과 三身說은 이기영, 「불신에 관한 연구」, 『불교학보』3·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69 참조.

21) 박은경, 앞의 논문, 2005, 16~18쪽.



도 8. 마곡사 석가모니괘불(본존), 조선 1687년 도 9. 마곡사 괘불(도 8 본존명호)

佛(도 7), 화기에 ‘大靈山會上幀’이라 각각 기술되어 있어 대영산회에 노사나괘불을 사용한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㉞유형인 마곡사 괘불의 경우, 본존 두광에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도 8·9)이라 기입되어 있어 대영산회에 등장한 석가불을 표현한 것이다. 주변의 권속들은 법화경 제1 서품의 석가의 설법연회인 영산회상 장면을 도상화한 것이며, 석가가 보살형의 보관을 착용하고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拈花示衆을 의미하는 拈花佛 석가를 의미한다.²²⁾

다만, 두광에 적힌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의 ‘천백억화신’은 대승경전 화엄경을 설할 때 천백억의 세계에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 보살, 성문, 연각의 三乘을 교화하여 이익케 한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마곡사괘불의 ㉞연꽃가지를 양손에 쥔 대관보살형은 화엄경과 법화경, 선종의 사상이 융합된 도상으로 볼 수 있다.²³⁾

결국 신원사 괘불과 같은 대관보살형 도상은 보신 노사나불로서 대영산회 교주인 석가의 대응 도상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노사나불과 같은 대관보살형의 마곡사괘불은 화신 석가모니임을 증명해 준다. 이는 바로 석가모니가 삼매에 들면서 노사나불과 일체가 되는 것을 시각화 한 것이며, 이 노사나불은 화엄 불신관에 의하면 바로 법신인 비로자나불과 동일한 불신이다. 즉, 법신·보신·화신

²²⁾ 기존에 마곡사의 도상에 대해 다음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장충식, 앞의 논문, 1995, 254~255쪽; 문명대, 1998, 207~226쪽; 이은희, 앞의 논문, 1997, 165~166쪽; 정명희, 앞의 논문, 2004, 183~185쪽; 김정희, 앞의 논문, 2004, 12~13쪽.

²³⁾ 김정희, 앞의 논문, 2004, 13, 16쪽 참조; 박은경, 앞의 논문, 2012, 196쪽.

즉 삼신은 바로 일신을 말하며, 석가·비로자나·노사나불은 결국 하나로 일체화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⑥연꽃가지를 양손에 쥔 무량사 괘불은 ‘彌勒掛佛幀[화기], 장곡사는 ‘靈山大會掛佛幀[화기], ‘彌勒尊佛[화면내]이라는 주제 및 도상명을 각각 밝히고 있다. 영산작법을 행하는 17세기 신앙의례에 있어 석가와 더불어 미래의 구세주로 시간의 연속성 고리를 지닌 미륵이 등장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도상은 아니나, 조선후기 영산회 설법교주인 석가의 도상으로 완전 정착되기 이전 17세기의 과도기적인 도상을 반영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불교의식집의 하나인 『五種梵音集』(1661)은 장곡사 괘불에서 보이는 혼합된 신앙 양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며,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의 공존기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석가모니불로 통합되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⁴⁾

조선시대 양란을 겪고난 17세기 이후, 사찰들이 재건되면서 기념비적 대형 괘불들을 조성하여 대영산 범석을 마련하여 영혼천도 의식제를 행하였다. 이때 괘불의 본존으로 화신 석가불, 보신 노사나불과 같은 대관보살형 도상은 화엄과 법화사상이 융합된 대표적 사례이다. 여기에 연화수지 대관보살형은 화엄과 법화신앙 외에 염화시중을 상징하는 선종사상이 융합된 것으로,²⁵⁾ 이 모두 화엄계 사찰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²⁶⁾ 대관보살형 노사나불이 포함된 삼신불괘불을 조성한 공주 갑사(1650)는 화엄십찰에 속하는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각내 걸렸던 삼신불회도도 화엄종 사찰의 대적광전의 상단탱 불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사나괘불(1664)을 보유한 공주 신원사는 화엄경을 전승한 벽암 각성(1575~1660)의 제자인 백곡 처능의 靈骨이 신원사(당시 신정사)에 분장되었다.²⁷⁾ 는 사실과, 대관보살형 화신 석가괘불(1687)을 조성한 공주 마곡사는 경내에

²⁴⁾ 김수영, 앞의 논문, 2010, 9~10쪽; 정명희, 앞의 논문, 2012, 10~12쪽. 미륵불을 영산회에 본존으로 신앙하는 것에 대해 불교의식집의 하나인 『五種梵音集』(1661)에 「靈山作法」편에 당시 의식을 행함에 있어 미륵과 석가신앙이 서로 혼용되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김수영, 앞의 논문, 2010, 11~12쪽; 정명희, 앞의 논문, 2012, 18~20쪽.

²⁵⁾ 김정희는 연꽃가지를 손에 쥔 대관보살형 도상인 마곡사괘불에 대해 戴寶冠持蓮華形이라 일컬으며, 선종의 교법을 단적으로 표현한 염화시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희, 앞의 논문, 2004, 12~16쪽.

²⁶⁾ 이영숙은 장엄신도상 중 연화수지유형과 설법인유형 모두 보관노사나불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보관노사나불과 삼신불 도상의 괘불들은 전통적인 화엄계 사찰과의 관계를 시사한 바 있다. 이영숙, 앞의 논문, 156쪽.

²⁷⁾ 申晟(1628~1687)이 쓴 ‘白谷處能師碑銘’과 崔錫鼎(1646~1715)이 쓴 ‘白谷禪師塔銘’에는 승려 백곡 처능이 입적하였을 때 그 영골을 모악산의 금산사, 대둔산의 안심사 계룡산의 신정사(신원사를 말함) 등 세 곳에 분장하였다고 한다. 『汾厓遺稿』 권10, 碑銘, 白谷處能師碑銘 并序, ‘申春 移住金山寺 作大法會五晝夜 六月二十日 示微恙 秋七月初一日 遂就化 世壽六十有四

대법당 대광보전 외에도 대웅전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다.²⁸⁾

이처럼 화엄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 대관보살형 괘불이 영산회 의식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조선 초부터 법화경 신앙이 성행하면서 법화경 사경과 영산회도가 제작되었고, 괘불이 조성되는 17세기 이후 전 시기를 통해 법화경에 근거한 영산회상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⁹⁾ 이같은 상황은 적어도 17세기 충청권역의 사찰에 대형의 의식용 대관보살형 괘불이 영산회 의식에 사용될 수 있었던 시대상으로, 석가가 화신의 모습이든 보신의 모습이든 신앙의 중심은 영산회 설법교주인 석가로 귀일되는 현상이다.³⁰⁾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법화신앙의 바탕 속에서 화엄의 불신관과 선종의 염화시증이 융합 될 수 있었던 불교계의 동향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대관보살형 괘불의 보관형식과 금색문양, 코발트계 청색

마곡사 본말사 괘불 제작에 참여한 수화사와 동참 화승들의 명단은 괘불의 하단에 마련된 화기란에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표 3). 먼저, 무량사 괘불(1627)의 경우, 수화사 法罔의 구체적인 생몰년과 구체적인 화적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이 무량사 미륵괘불(1627)의 수화사 법경(法罔)과 칠장사 오불회괘불(1628)의 법형(法罔)을 기준에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³¹⁾ 물론 무량사 괘불(1627)의 法罔과 칠장사 괘불(1628)의 法罔 양자간에 한자표기의 화승명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괘불 제작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측

禪臘四十有九 其夕白氣十二道 橫亘半空 衆皆嗟異之 闇維得靈骨三片 分藏於母岳之金山 大菴之安心 鷄籠之神定, 『明谷集』 권21, 碑銘, 白谷禪師塔銘, 『庚申春 作大法會于金山寺 其七月二日 涅槃于丈室 度世六十四 僧臘四十九 是夕異氣橫空 透茶毗而建窣堵三處 金山安心及鷄籠之神定是已』; 박은경, 앞의 논문, 2005, 5~6쪽 참조.

²⁸⁾ 정조 6년(1782)에 대광보전을 비롯해 선실과 범종루 등 1050칸이 불타 1785년에 대대적인 중창을 하였고 1788년에는 대광보전을 개건하였다. 국립공주박물관, 앞의 논문, 2012, 17쪽.

²⁹⁾ 홍윤식, 『靈山會上幀畫와 法華經信仰』, 『한국불교학』3, 1977, 107쪽; 정명희, 『靑谷寺 掛佛幀과 『五種梵音集』』, 『晉州 靑谷寺 掛佛幀: 통도사성보박물관괘불탱특별전10』, 2003, 11~12쪽.

³⁰⁾ 한중만, 『불교의 법신론』, 『한국불교사상의 전개』, 민족사, 1998, 16~19쪽; 정명희, 앞의 논문, 2004, 178~179쪽 재인용.

³¹⁾ 이승희, 『1628년 七長寺 〈五佛會掛佛圖〉 연구』, 『미술사논단』23, 2006, 185~192쪽; 유마리, 『多佛(三身三世佛) 괘불화』, 『강좌미술사』33, 2009, 180쪽; 김수영, 앞의 논문, 2010, 17~19쪽.

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 괘불 양자간의 표현 기법상에 있어서 차이가 확연하여,³²⁾ 동일인물로 간주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표 3. 17세기 충청권 대관보살형 괘불과 화승들³³⁾

	사찰	본존명칭	연대	화원	화승명
①	무량사괘불	미륵불	1627	畫員	法罔, 慧允, 仁學, 熙尙
②	갑사괘불	삼신불	1650	畫員	敬岑, 辛雲, 守玄, 應悅, 海明, 學能, 道元
③	신원사괘불	노사나불	1664	畫員	應悅, 學全, 一測, 釋能, 〇漢
④	장곡사괘불	미륵불	1673	畫員	哲學, 天勝, 信密, 一湖, 海宗
⑤	수덕사괘불	노사나불	1673	畫員	應悅, 玉俊, 學全, 釋能
⑥	마곡사괘불	석가모니불	1687	畫師	能學, 戒湖, 唯順, 處默, 印行, 精印

다음, 신원사 괘불(1664)은 화면 하단에 기술된 묵서화기에 의해 수화사 應悅과 學全, 一測, 釋能, 〇漢 등이 참여하였고, 이 신원사 괘불보다 9년 후에 제작된 수덕사 괘불(1673)도 동일 수화사 應悅외에 玉俊, 學全, 釋能이 참가하였다. 이 두 작품 모두 수화사 應悅, 學全, 釋能과 같은 동일 화승이 관여하였다. 수화사 應悅은 이미 敬岑이 주도한 계룡산 갑사의 삼신불괘불(1650)에도 그 이름이 보이는데, 동참 보조화승 총 6명 가운데 應悅은 3번째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應悅은 공주지역에서 敬岑아래 보조화승으로 참여하다가 이후 신원사괘불(1664)과 예산 수덕사괘불(1673) 제작에 수화사로 활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장곡사 괘불(1673)은 화면 하단에 마련된 붉은 색 바탕에 기술된 묵서화기에 수화사 哲學외에 天勝, 信密, 一湖, 海宗 등 5인이 참가하였는데, 수화승 철학은 굵고 힘찬 선을 즐겨 구사하는 화사로, 관음전 불화 제작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³⁴⁾ 마곡사 괘불(1687) 역시 화기에 의해 수화사 能學을 비롯하여 戒湖, 唯順, 處默, 印行, 精印 등 6인이 제작에 임하였는데, 이들 화승들의 작품 활동은 그 외 확인되지 않으나, 다만 능학의 경우 1655년에 수화승 혜회가 충북 보은 범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할 때 신중 노덕으로 등장한다.³⁵⁾

이상과 같은 화승들이 참여한 17세기 충청권 대관보살형 괘불의 모티프와




³²⁾ 박은경, 「안성 칠장사 法罔作 〈오불회괘불〉의 재검토」, 『불교미술사학』13, 2012, 82~85쪽.

³³⁾ 화승명은 송천스님·이종수·허상호·김종민(편저), 『한국의 불화 화기집』,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참조.

³⁴⁾ 정명희, 앞의 논문, 2012, 13쪽.

³⁵⁾ 안귀숙·최선일, 『조선후기 승장 인명사전-불교회화-』, 양사재, 2008, 78쪽.

표 4. 대관보살형 도상 괘불의 보관형식

보관 유형	A형	B형	
		B-①	B-②
대표 작			
	신원사(1664)	장곡사(1673)	마곡사(1687)



도 10. 적천사 괘불(본존), 조선 1695년
마본채색, 1148X454cm
경북 청도 적천사



도 11. 장곡사 괘불(본존), 조선 1673년
마본채색, 809X566cm
충남 청양 장곡사

색체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존이 착용한 보관의 형식 및 장식이다. 보관형식은 2종류(A·B형)로 구분된다(표 4). 먼저 A형은 중앙의 화불을 중심으로 금속성의 횡대가 좌우 대칭으로 뻗은 것으로 무량사 괘불(1627), 신원사 괘불(1664)(도 7)을 들 수 있다. 이 보관은 고려후기~조선전기의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보살의 보관형태에서 보다 장식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횡대에 달린 아름답고 화려한 수식장식이 눈에 띈다. 조선 17세기 보살사 괘불(1649), 영수사 괘불(1653), 쌍계사 고법당 영산회상도(1688) 등에 보이는 보살의 보관과 유사 계통이며, 그 외 다수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A형 보관은 적천사 괘불(1695)(도 10), 수도사 괘불(1710)의 보관처럼 점차 정상부의 금속판이 만곡해지면서 폭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 B형은 관대를 축으로 몸체가 부채꼴처럼 펼쳐지면서 상하 1~2단으로 구성된 경우이나, 이 B형은 다시 ①②로 구분지을 수 있다. B-①는 장곡사 괘불(1673)처럼 부채꼴 모양의 몸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칸으로 구획된 사례이다. 반면 B-⑥는 마곡사 괘불(1687)처럼 부채꼴 모양의 몸체가 정면 3면으로 입체적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먼저, 장곡사 보관(B-④)(도 11)은 몸체가 2단의 낮은 부채꼴 형태로, 관대에는 중앙의 연꽃을 중심으로 등근 화형을 좌우대칭으로 장식하였고 바로 위에는 여의두문을 표현하고 있다. 양쪽 귀 뒤에는 관대를 묶은 끈이 옆과 아래로 직선으로 곧게 표현되어있다. 관대 위 1단은 운문형이고 가장자리에 총 6개의 화염보주가 대칭적으로 장식되어있고, 2단은 장방형으로 구획된 9면의 형태로 가장자리에 총 9개의 화염보주가 장식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부채꼴처럼 펼쳐진 몸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9면으로 구획을 이룬 격간 형식은 마곡사본의 삼면의 보관 형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B-④ 보관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나, 유일하게 조선초기 호암미술관 금동보살좌상³⁶⁾의 보관에 5구의 화불이 배치된 사례와 같은 계열이다. 보

살상의 보관에 5화불이 표현된 사례는 티벳 불교의식 때 쓰는 五佛冠³⁷⁾에서 유래한 것으로, 티벳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은 원·명대 보살상의 보관³⁸⁾(도 12·13)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명대 善化寺 문수 보살상의 보관(도 12)



도 12. 문수보살상(부분)
중국 명대, 4m
大同市 善化寺 三聖殿



도 13. 비로자나불상(부분)
중국 명대 3.715m
平遙縣 雙林寺 大雄寶殿

몸체는 평면상의 화면에 옮겨 펼쳐 그리면 장곡사 보관과 거의 흡사하다. 즉, 장곡사와 같은 B-④형은 외래요소를 수용한 보관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마곡사 보관(B-⑥)은 관대와 관대 끈 장식이 장곡사 보관(B-④)과 거의 동일하지만, 상하 2단의 형태와 몸체가 가운데 면을 중심으로 좌우가 중첩된 삼면 부채꼴형이다. 가운데 면은 황색 바탕에 서운을 배경으로 보주띠 문양을

³⁶⁾ 『조선전기국보전』, 호암미술관, 1996, 185-2 도판(233쪽) 참조.

³⁷⁾ 김정희는 마곡사 보관을 오각형 형태로 보고, 이 같은 형태는 중국 10세기 이후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행하였던 보관형식으로, 티벳의 탄트라불교 의식때 사용하였던 五佛冠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정희, 앞의 논문, 2004, 8쪽(주16) 참조.

³⁸⁾ 『佛教美術全集3』 雙林寺彩塑佛像, 文物出版社, 1997, 129쪽 도판; 『雙林寺彩塑佛像山西 佛教彩塑佛像』 中國佛教文化出版有限公司, 1991, 62·81쪽 도판; 형겅소재로 만들어진 오불관 사례는. 金申(著), 『佛教美術全集15』 西藏佛教美術講座, 文物出版社, 1997, 234쪽 도판 참조.



도 14. 광덕사 괘불(본존), 조선 1749년, 마본채색, 충남 천안 광덕사



도 15. 쌍계사 괘불(본존), 조선 1799년, 마본채색, 경남 하동 쌍계사

부리에 머금은 봉황이 날고 있고, 그 양쪽 좌우 면은 감색 바탕에 서운이 그려져 있어, 마치 정토세계의 장엄상을 보관에 압축해 놓은 듯하다. 보관 하단의 위쪽 가장 자리에는 범자가 적힌 화염보

주 5개와 원형보주 4개를 교대로 장식하였으며, 상단 가장자리에도 화불 5위와 원형보주 4개를 교대로 장식하였다. 귀 옆 관대장식에도 각 1위의 화불이 있어 보관에는 총 7구의 화불이 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채와 각종 길상 모티프와 화문, 보주 등이 장식된 매우 특징적인 보관이다. 이같은 보관형식은 18세기 광덕사 괘불(1749), 쌍계사 괘불(1799)(도 13·14)의 대관보살형 도상의 보관에서 동일 계열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시기에는 횡폭은 다소 좁아진 반면 높이는 꽤 높아진 형태로 변한다.

그런데 이 B-⑥형의 보관은 조선전기에 이미 보살형 도상이 아니라 사천왕



도 16. 석가설법도(부분), 조선 1562년, 마본황백선묘, 161.6x124.5cm, 일본 소겐지(曹源寺)



도 17. 석가설법도(부분), 조선 1688년, 마본채색, 377.0x272.0cm, 하동 쌍계사 고법당



도 18. 칠장사 괘불(부분), 조선 1710년, 마본채색, 544x422cm, 보물1256호 안성 칠장사

상 보관에 유사 형태가 보인다. 예를 들면, 조선전기 일본 소겐지(曹源寺) 석가 설법도(1562)의 동방 지국천왕(도 16)의 보관과도 매우 흡사하며,³⁹⁾ 17세기의 안심사(1652), 영수사(1653), 북장사(1688) 등 패불의 동방·북방천왕, 쌍계사 고법당 영산회상도(1688)의 동방천왕(도 17)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에 도 칠장사 오불회패불(1710)의 동방·북방천왕(도 18)을 비롯한 다수의 불화에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석사 패불(1745)의 동방·북방천왕처럼 보관의 몸체가 삼면이 아니라 오면으로 구성된 사례도 눈에 띈다.

이상과 같이 마곡사·광덕사 패불의 보관B-⑥처럼 부채꼴 형태, 2단 구성, 관대와 관대 끈 장식이 있는 보관의 특징적인 개요는 조선전기 파계사 건칠보살좌상(1447년 중수), 국립중앙박물관 보살좌상(조선전기), 그리고 17세기 동국대 박물관 소장 목조보살상(1620) 보관을 들 수 있으며,⁴⁰⁾ 이후 조선 후기 불화에서도 동일 계통의 보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삼면으로 중첩된 형태는 조선시대 보살상 조각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이 마곡사나 광덕사 패불의 보관은 오불관과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원명대에 보살상 등이 여러 면으로 이뤄진 관을 착용하였다는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B-⑥형과 같은 보관은 고려 후기~조선전기 불화에 있어서 보살상이 착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극히 드물지만, 불보살의 권속인 북방 다문천 혹은 동방 지국천왕의 보관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천왕상의 보관에는 화염 보주등이 장식된 경우가 있거나 생략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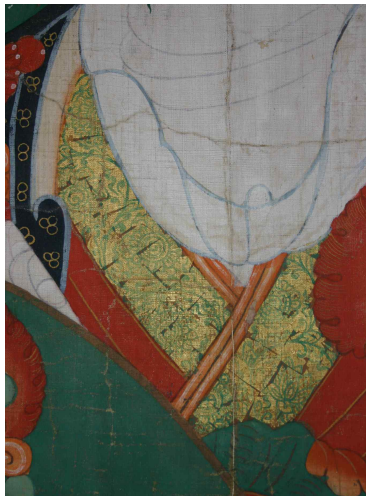
따라서 마곡사 보관형태(B-⑥)는 고려~조선전기 불화에서는 보살상이 전형적으로 착용한 보관은 아니나, 이미 중국에서는 보살형 본존상이 유사 형태를 착용하였으며, 나아가 고려~조선전기 입체적인 보살상에서 유사한 보관형태를 착용하였다. 이를 통해 마곡사 보관형은 적어도 불화에서는 조선 17세기에 이르러 대관보살형 본존의 보관에 차용되었으며, 18세기로 계승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려 후기~조선전기 불화의 사천왕상에 보이는 동일 유형의 보관은 1차적으로 중국 원·명대 사천왕상의 보관과 복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사천왕상의 보관의 장엄요소가 패불의 본존의 보관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다는 양란이후 17세기에 이르러 보살형 본존의 보관에 2차적으로

³⁹⁾ 박은경, 앞의 책, 2008, 도 1~11 참조.

⁴⁰⁾ 2~3단으로 구성된 보관에 당초문과 화염보주가 장식된 유사사례는 동국대박물관 소장 목조 보살상(1620) 보관이 있으며, 그 이전 시기에도 동일계 보관으로 파계사 건칠보살좌상(1447년 중수), 국립중앙박물관 보살좌상(조선전기) 등이 있다. 최은령, 『한국의 건칠불상 연구-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불교미술사학』5,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7;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시공아트, 2008, 도 1~11 참조.



도 19. 신원사패불(본존법의), 조선 1664년



도 20. 마곡사패불(범천부분), 조선 1687년

중국(명·청대)으로부터 외래요소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색채에 있어서 광배와 착의 문양에 부분적으로 화려한 금박편을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과 유사색을 띠는 자황으로 추정되는 황색을 금니(혹은 금박)에 대체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원사 패불(1664)의 경우, 본존과 보살상, 화불 등의 육신은 石雌黃(별칭 황금석이라고도 함)으로 추정되는 안료를 사용하여 금니색 효과를 내고⁴¹⁾, 본존의 두광 가장자리에는 13cm 전후 길이의 금박을 연결하여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다. 본존의 경우 양쪽 어깨에 걸친 녹색 하피의 바탕에 자황색의 문양화된 범자를 흘뜨리고 있으며, 허리에 걸친 단상의 가장자리에 금박의 집단국화문(도 19)을 촘촘히 배열하고 있다.⁴²⁾ 이외 보살상이나 사천왕상의 착의에도 금박의 동일 문양이 확인된다. 이 국화집단문의 장식은 장곡사 패불(1650)의 나한상의 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곡사 패불(1687)도 원형 두광의 가장자리, 2단으로 형성된 보관의 가장자리, 비로자나와 노사나불, 벽지불, 나한상 등의 가사의 가장자리와 조부, 범·제석천의 상의의 목둘레 등 외곽 테두리(도 20) 등에 금박 편을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 그 외 보관의 보주나 본존 양쪽

41) 박은경, 앞의 논문, 2005, 19쪽; 부석사패불의 황색 부분 채색은 금, 황단, 석황 등 3종류의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광학적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그 중 상단부의 부처나 보살의 복식 문양을 표현하는데 금 대신에 석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처나 보살의 피부색이나 면을 채색하는 경우에는 강하지 않은 황단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부석사패불』, 2007, 43쪽; 박은경, 앞의 논문, 『마곡사麻谷寺 근대불화를 만나다』, 2012, 202쪽.

42) 박은경, 앞의 논문, 2005, 18~19쪽.

어깨에 장식된 금속 장신구, 보살상의 정병, 사천왕의 보관 등 금속성 모티프나 보주 등에 금박 사용이 눈에 띈다. 이같은 점은 17세기 충청권 패불에 집중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이후 전각내 후불화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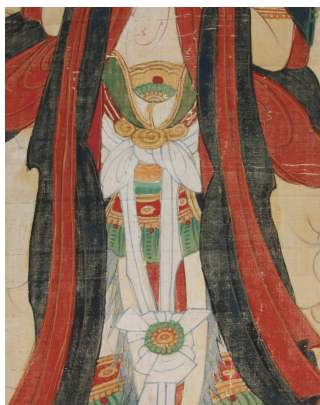
도 21. 신원사패불(본존법의 부분), 조선 1664년



도 22. 신원사패불(천부작의 부분), 조선 1664년

셋째, 착의와 장신구

채색 중 코발트계 짙은 군청안료이다. 무량사 패불(1627), 갑사 패불(1650), 신원사 패불(1664), 수덕사 패불(1673), 마곡사 패불(1687) 등에 확인되며, 17세기 충청권 패불에 공통적으로 집중 사용된 안료로 보인다. 신원사의 경우, 본존 군의 의 무릎부위의 치전장식(도 21)과 화불의 법의 가장자리의 띠부분, 범·제석천과 사천왕상 중 일부 도상의 어깨에 걸친 천의(도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안료가 두텁게 발라져 있는데, 은색의 반짝임이 강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동일한 채색은 경기도 안성 칠장사 오불회패불(1628)의 여래의 두부 및 범·제석천 및 사천왕의 군청색 착의, 보살의 어깨에 걸친 천의(도 23·24) 등에 설채된 짙은 군청색과 유사하며, 수덕사 패불(1673)의 법의에 보이는 군청안료와도 동일계로 판단된다.⁴³⁾ 조선시대 백자에 사용하는 청화안료 중 청료 안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은 上靑으로 품질이 좋은 청료를 나타내며, 청료 안에 은색이 있는 것은 中靑으로 중간 정도의 품질을 가진 청료라 한다.⁴⁴⁾



도 23. 오불회패불(보살착의), 조선 1628년, 견본채색, 661X407.3cm, 경기도 안성 칠장사



도 24. 오불회패불(청색안료), 조선 1628년, 경기도 안성 칠장사

⁴³⁾ 박은경, 앞의 논문, 2005, 19쪽.

⁴⁴⁾ 채굴된 코발트광물에는 각종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정제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청화

따라서 석영 이외에 뽀짝임이 강한 은색이 포함된 청색은 아마도 청료 안에 은색이 포함된 증청으로 확인되는 안료일 가능성이 있으며, 칠장사 오불회괘불 화기에 시주품목으로 重靑 혹은 大靑, 靑花라는 명칭이 보여,⁴⁵⁾ 그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17세기 괘불에 보이는 석영 및 은색이 함량되어 있는 코발트계 짙은 군청 안료는 16세기 불화에 설채된 청색 안료와는 차이가 있어, 적어도 17세기 경기·충청권역의 지역적 특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북지역 상주 용흥사(1684), 예천 용문사(1705), 문경 김용사(1703) 괘불에서도 유사한 안료의 군청색이 확인되나 밝은 색감의 화사한 군청색이 보인다. 이 세 지역 모두 경북지역에 속하나 충청도와 인접한 경계지역에 위치한 사찰이다. 따라서 17세기 경기·충청권역에서 주로 사용된 안료가 17세기말~18세기초 경북지역으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V. 맺음말

현존하는 조선시대 90여 점의 괘불 도상 중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장엄한 특이한 도상의 대관보살형 괘불은 20여 점에 이른다. 양란이후 17세기에 사찰들이 재건되면서 기념비적인 대형 괘불들을 조성하여 대영산법석에 영혼친도 의식제를 행하였다. 괘불 출현으로서는 이른 시기인 17세기에 대관보살형 괘불이 등장하며, 지역적으로도 마곡사 본말사 괘불을 비롯한 수덕사 등 충청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때 괘불의 본존은 대관보살형의 외장형 설법인 혹은 연화수지 도상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대관보살형 도상은 화신 석가불 혹은 보신 노사나불로, 화엄과 법화 사상이 융합된 대표적 사례이며, 여기에 염화시중을 상징하는 선종 사상이 융합된 연화수지형도 함께 등장한다. 이 대관보살형 도상과 관련하여 석가·비로자나·노사나(법신·보신·화신)의 삼신은 결국 하나로, 三身 즉 一身을 의미한다.⁴⁶⁾ 조선후기 법화의 대영산회상을 구현한 시

안료로 사용하며, 이를 정제하는 방법으로 고청(敲靑)과 도청(淘靑) 2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고청은 추로 잘게 부수는 공정을 말하는데, 청료 안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은 上靑, 청료 안에 은색이 있는 것은 中靑이라 한다. 김익환, 『조선시대 백자청화안료의 과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쪽.

⁴⁵⁾ 박은경, 앞의 논문, 『불교미술사학』13, 2012, 75~76쪽. 조선왕조실록에 국내산 청화안료의 채취에 대한 기록 가운데 15세기 기록이기는 하나 회회청, 심중청, 토청, 삼청 등을 채취하여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김익환, 앞의 논문, 2010, 주98 참조.

⁴⁶⁾ 주20 참조.

공간에 화엄의 불신관과, 염화시중의 선종 사상이 융합되어 이미지화된 복합 도상이다. 이같은 융복합 도상은 화엄과 관련있는 충청권역의 사찰에서 견인 역할을 하여 18세기 경북, 경남권역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충청권 대관보살형 괘불에 몇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본존이 착용한 화려한 보관이 매우 특징적으로, 크게 2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무량사(1627), 신원사(1664) 괘불처럼 보관 양측에 금속성의 횡대가 대칭적으로 뻗은 것으로, 이 형식은 고려후기~조선전기의 전통적인 보살상의 보관형태에서 발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곡사(1687), 장곡사(1673) 괘불처럼 통채부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보기 드문 형식으로, 티벳 라마불교 양식을 수용한 원·명·청대 보살상에서 보이는 보관의 영향을 받은 외래 요소로 보인다. 고려후기~조선전기 입체형 보살상에서 유사 형식이 보이며, 보살형 본존 불화에 사용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 수용된 모티프이다. 둘째, 광배와 착의 문양에 부분적으로 화려한 금박편을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과 유사색을 띠는 자황으로 추정되는 황색을 금니(혹은 금박)에 대체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금박의 국화집단문은 이 시기에 유행한 표현기법으로 이후 18세기로 확산된다. 셋째, 착의와 장신구 채색중 코발트계 군청안료는 무량사(1627), 갑사(1650), 신원사(1664), 마곡사(1687) 괘불 등에 확인되며, 17세기 충청권 괘불에 공통적으로 집중 사용된 안료로, 은색이 포함된 靑靑으로 확인되는 짙은 청색 안료일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이 청색 안료는 17세기 경기·충청권역의 지역적 특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세기에도 수급되어 차츰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 본고에 실린 도판은 필자 촬영외에는 『한국의 불화』1~40(성보문화재연구원, 1996~2007)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 투고일 2013년 2월 9일 | 심사완료일 2013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2일 ▣

참고문헌

<사료>

『佛祖統紀』

『韓國佛教全書』

『汾厓遺稿』 『明谷集』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朝鮮篇1, 伽山文庫, 1999.

<국내>

홍윤식, 「靈山會上幀畫와 法華經信仰」, 『한국불교학』3, 한국불교학회, 1977.

김용조, 「白谷處能의 諫廢釋教論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4, 1979.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괘불조사보고서』 I (II), 1992, 2000.

장충식, 「조선조괘불의 고찰-본존 명칭을 중심으로-」, 『한국의 불화』9 직지사본
말사편(하), 정보문화재연구원, 1995.

『한국의 불화』1~40, 정보문화재연구원, 1996~2007.

이은희, 「조선후기 미륵보살도의 연구」, 『문화재』3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이태승, 「고려불화에 사용된 안료와 그 기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조형논총』2,
용인대학교조형연구소, 1997.

문명대, 「삼신불의 도상특징과 조선시대 삼신불회도의 연구-보관불 연구 I」, 『한
국의 불화-선암사편』12, 정보문화재연구원, 1998.

_____, 「삼신불의 도상 특징과 조선시대 삼신불회도의 연구 : 보관불 연구 1」,
『한국의 불화』12, 선암사본말사편, 정보문화재연구원, 1998.

유마리, 「충남 무량사 불화의 고찰」, 『고고역사학지』16,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0.

이영숙, 「조선후기 괘불탱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정희, 「마곡사 괘불탱」, 『공주 마곡사 괘불탱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
전 12』, 통도사성보박물관, 2004.

문명대, 「삼신삼세 도상의 형식과 기림사 삼신삼세불상 및 불화-고려·조선 불
교조각사 연구」, 『한국의 불상조각 4 :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정명희, 「조선후기 괘불탱화의 연구」, 『미술사학연구』242·243, 2004.

박은경, 「신원사 괘불탱」, 『공주 신원사 괘불탱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
전 13』, 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 이승희, 「1628年 七長寺 <五佛會掛佛圖> 研究」, 『미술사논단』23, 2006.
- 황규성, 「조선시대 삼세불 도상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20, 2006.
-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시공아트, 2008.
- 유마리, 「多佛(三身三世佛) 괘불화」, 『강좌미술사』33, 2009.
- 김수영, 『부여 무량사 괘불탱 : 통도사 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22』, 통도사 성보박물관, 2010.
- 박은경, 「안성 칠장사 法潤 作 <오불회괘불>의 재검토」, 『불교미술사학』13, 2012.
- 국립공주박물관, 『마곡사麻谷寺 근대불화를 만나다』, 2012.
- 정명희, 「1673년 청양 장곡사 괘불 연구」, 『청양 장곡사 괘불탱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26』, 통도사성보박물관, 2012.

<국외>

- 『山西佛教彩塑佛像』, 中國佛教文化出版有限公司, 1991.
- 『佛教美術全集3』, 雙林寺彩塑佛像, 文物出版社, 1997.
- 『佛教美術全集15』, 西藏佛教美術講座, 文物出版社, 1997.
- 『雙林寺彩塑佛像』, 藝術家, 1997.

Abstrat

The Feature of the Gwaebul(掛佛) Representing the Crowned Bodhisattva Style(戴冠菩薩形) in Chungcheong Province in the 17th Century of Joseon Dynasty

Park, Eun-Kyung

Among the ninety paintings of the Gwaebul(掛佛) of Joseon Dynasty existing, there are around twenty paintings of the Gwaebu representing the crowned bodhisattva style(戴冠菩薩形), putting a splendid crown on the head and decorating a body uniquely. The Gwaebul representing the crowned bodhisattva style appeared in the 17th century, the advent period of the Gwaebul. Moreover, the Gwaebul are distributed in Chungcheong province with Magok-temple and its sub-temple. At that time, the main Buddha of the Gwaebul were the crowned bodhisattva with The Dharma talk of Mudra(說法印) which is an upturned palm or grasping a stem of lotus flower.

This icon of the crowned bodhisattva style as the Nirmanakaya(化身)-Shakyamuni Buddha(釋迦牟尼佛) or Sambhogakaya(報身)-Locana Buddha(盧舍那佛) is a typical example of a unified Avatamsaka(華嚴) and Saddharmapundarika(法華) idea. In addition, the icon of grasping a stem of a lotus flower blended Dhyana idea symbolizing the Holding a flower with a smile(拈花微笑 or 拈華示衆) appears with them. The icon of the crowned bodhisattva style means that Trikaya who are Dharmakaya(法身)-Vairochana Buddha(毘盧舍那佛), Sambhogakaya(報身)-Locana Buddha(盧舍那佛), and Nirmanakaya(化身)-Shakyamuni Buddha(釋迦牟尼佛) are one body or two buddha who are Dharmakaya and Nirmanakaya are one body. It is a multiple icon that the perspective of the Buddha body in Avatamsaka and Dhyana idea of the Holding a

flower with a smile were combined in the world of space and time of The Vulture Peak assembly of adbharmapundarika. This multiple icon was produced at the temple related to Avatamsaka of Chungcheong Province as a lead , and it did a role of a guide. After that, it is supposed that the icon proliferated to Gyeongbuk and Gyeongbuk province in the 18th century.

Furthermore, there are some interesting points for the form of the crown, pattern of golden color in the Gwaebu representing the crowned bodhisattva style in the 17th century. The First, a splendid crown put on the head of main Buddha is very characteristic which metallic width-bands stretch on the crown symmetrically such as the Gwaebu of Muryang-temple(1627) and Sinwon-temple(1664). This kind of form had been developed from traditional crown form of bodhisattva in the late of Goryeo dynasty and the early of Joseon Daynasty. The other is rarely that the crown is consist of 1~2 stage up and down such as the Gwaebul of Magok-temple(1687) and Janggok-temple(1673). It is supposed that the point of this crown is from Yüan and Ming.

The second, some posh gold leaves were partially utilized on a halo and patterns of clothes, also, instead of gold or gold leaf, the yellow pigment conjectured a gamboge and similar gold color was used in there actively. especially, the chrysanthemum-group-pattern of the gold leaf was a trend of design technique in the 17th century. After that, it proliferated to the 18th century.

The Third, there is a dark navy blue pigment of cobalt blue line which the glint is strong on painting clothes and all sorts of accessories. To use the dark navy blue is verified in the Gwaebul of Muryang-temple(1627), the Gwaebul of Gap-temple(1650), the Gwaebul of Sinwon-temple(1664), the Gwaebul of Magok-temple(1687), and so forth. Moreover, this pigment was used in common and intensively in the Gwaebul of Chungcheong province in the 17th century.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 pigment is the dark blue pigment checked by Jungcheong(重靑) including silver. At any rate, it is relat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 in the 17th century.

Key Words : the Gwaebul Representing the Crowned Bodhisattva Style(戴冠菩薩形掛佛), Magok-temple, Sinwon-temple, Gap-temple, Janggok-temple, Sudeok-temple, Muryang-temple